

경제학과의 교과과정 현황과 개선방안

신 의 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1. 국내 경제학 교육의 역사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 출간을 계기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근대국가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殖産興業觀이 경제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경제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실학과 경제사상이 있었으나, 국가정책이나 사회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소멸되고 말았다.¹⁾

1800년대 말 일본에 유학한 한국인 학생들에 의해 국내에 소개된 자본주의 경제학은 1907년 『경제학』, 『경제학론』, 『화폐론』, 『은

행론』, 『재정학』 등의 경제학 교과서가 국내에서 발간됨을 계기로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1908년에는 『경제통론』, 『외국무역론』 등이 간행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일본인의 저서를 번역하였거나 강의를 정리하여 발간한 것이었다. 한국경제사 및 조선경제에 관한 연구서는 1920년 이후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경제학 교육은 1898년 이후 민족계 및 기독교계 사립학교와 법관양성소, 중학교 등의 관립학교에서 실시되었는데,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학교 내지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5년 ‘전문학교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내의 경제학 교육은 일시 침잠기를 맞게 된다.

1) 경제학 도입 역사는 이기준, 『한국경제학교육사 연구』, 한국연구원, 1982에 근거하였음.

〈표 1〉 전공기초과목 개설현황

과 목 명	개설대학 수	서 울	연 세	고 려	서 강
경제원론 (1)	43+(2)	0	0	(전 선)	0
경제원론 (2)	34+(3)	0	0	0	0
통 계 학 (1)	28+(11)	0	통계학 1, 2	×	0
경제수학 (1)	33+(11)	(전 선)	수학 1, 2	0	×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경제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1989. 12.

- 4개 대학의 경우는 최근 자료 활용.
- 개설대학 수 중 ()는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경우임.
- 과목명은 실제 개설된 과목명과는 약간 다를 수 있음.

〈표 2〉 전공필수과목 개설현황

과 목 명	개설대학 수	서 울	연 세	고 려	서 강
미시경제학 (1)	49+(1)	0	0	0	0
거시경제학 (1)	50	0	0	0	0
계량경제학 (1)	29+(21)	(전 선)	(전 선)	0	0
화폐금융론 (1)	34+(16)	(전 선)	0	(전 선)	(전 선)
재 정 론 (1)	31+(18)	(전 선)	0	(전 선)	(전 선)
국제경제학 (1)	26+(16)	(전 선)	0	(전 선)	(전 선)
경 제 사 (1)	37+(3)	0	0	0	×
경제학설사 (1)	27+(8)	(전 선)	0(1, 2)	(전 선)	(전 선)
경 제 정 책	19+(26)	(전 선)	×	(전 선)	×
한국경제론	16+(32)	(전 선)	0	(전 선)	(전 선)

* 자료 : 〈표 1〉 과 동일.

- 연세대는 추가로 회계원리와 졸업논문을 전공필수로 함.
- 서강대는 추가로 수리경제학, 경영 10, 20과 졸업논문을 전공필수로 함.

새로 제정된 '전문학교 규칙'에 의해 1917년 국내 최초의 전문학교인 연희전문학교가 탄생하였다. 학과는 문과, 신과, 수학 및 물리학과, 상과, 농과, 응용화학과의 6개 과로 종합대학교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1905년 설립된 보성전문학교는 1915년부터 전문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으며, 1922년 신교육령에 의해 보성전문학교로 재출발하게 된다. 한편, 1920년 인가를 얻은 경성고등상업학교는 1922년 신교육령에 의해 관립 전문학교로 인가되었으며 이때부

터 한국인의 입학이 허용되었다. 1926년 학부가 개학한 이후 경성제국대학에는 경제학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전술한 3개 전문학교의 상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35년 이후 법학과 第3類는 경제학과에 유사한 교과과정을 갖추어 3개 사립전문학교의 상과와 비교가 가능하다.

연희전문과 보성전문 상과 출범시에는 경제학 과목에 비해 상학 과목의 비중이 월등히 컸으나,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학 과목의 비중이 늘어 연희전문의 경우 경제학 및 상학

〈표 3〉 전공선택과목 개설현황 (빈도수 기준 상위 20개)

순 위	과 목 명	개설대학 수	서 울	연 세	고 려	서 강
1	경 제 발 전 론	50	0	0	0	0
2	노 동 경 제 학	49	0	0	0	0
3	산 업 조 직 론	41	0	0	0	0
4	농 업 경 제 학	41	0	0	×	0
5	한 국 경 제 사	38	0	0	0	×
6	국 제 금 융 론	35	0	0	0	0
7	수 리 경 제 학 (1)	35	0	0	0	(전 필)
8	경 제 변 동 론	34	0	×	×	×
9	경 제 학 특 강 (1)	31	×	×	×	0
10	비 교 경 제 제 도 론	30	0	0	0	0
11	자 역 도 시 경 제 학	29	△	0	×	0
12	근 대 경 제 사	28	0	0	0	0
13	후 생 경 제 학	26	×	0	0	×
14	경 제 학 세 미 나 (1)	24	×	×	×	0
15	경 제 학 원 서 강 독 (1)	24	0	×	×	×
16	경 제 계 획 론	22	0	0	0	×
17	자 원 경 제 론	21	△	0	0	0
18	경 제 사 상 사	21	0	×	0	×
19	근 대 경 제 학 사	20	0	×	0	0
20	계 량 경 제 학 (2)	19	×	0	0	0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게서』에 의거하여 재작성.

· 4개 대학의 전공과목 개설현황은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음.

· 서울대는 지역경제학과 자원경제론을 묶어 지역·자원 및 환경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의 필수과목 설치비중이 같게 되었다.

해방 이후 1946년 8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경제학과와 상학과, 고려대학교에 경제학과와 상학과, 연희대학교에 경제학과와 상학과 등이 설치되는 것을 계기로 국민대, 성균관대, 동국대, 대구대, 청구대, 동아대, 건국대, 조선대 등에 경제학과가 설치되어 오늘날과 같은 경제학과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 후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미국유학파가 귀국하면서 국내 경제학계의 주류는 일본유학파에서 미국유학파로 전환되었다.

2. 교육현황

해방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학과 교육은 40여 년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다. 경제학과 졸업생들은 기업과 정부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를 선진경제권으로 진입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1994년 현재 경제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은

89개이며 학생수는 5,941명이다. 별도로 국제 경제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이 3개이고 학생수는 180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경제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경제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²⁾

1) 교육목표

각 대학이 발행한 학교요람 등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경제학과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경제학 교육을 통해 경제효율 및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준다.
- ② 한국경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③ 졸업후 정부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등에서 일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 교육과정의 내용

위에 열거한 교육목표는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대학요람 및 대학안내서 그리고 설문지 조사를 통해 정리한 경제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공필수과목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32개 대학 중 8개 과목이라고 답한 대학이 8개교로 가장 많았고, 적게는 6개부터 많게는 19개의 전공필수과목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전공선택과목의 경우, 응답자의 50%가 20개 이하를 개설하고 있고, 5개교는 31과목 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③ 졸업이수학점 중 경제학 과목의 비중은 45% 이상 55% 미만이 가장 많아 43%를 차지하였으며, 40% 미만이거나 60% 이상인 대학은 소수였다.

3) 전공과목의 개설현황

각 대학의 요람과 강의개설자료에 따르면 전국 50개 대학이 총 1,605개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대학당 경제학과 전공과목 개설수는 평균 3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1학기부터 1989년 2학기 기간중 전공과목의 개설현황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앞의 <표 1>, <표 2>, <표 3>이다.

3. 교육과정의 문제점

경제학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경제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지적한 내용과 서울, 연세, 고려, 서강 등 4개 대학을 비교·분석한 결과로 나누어 제시한다.

1) 교육과정의 전반적 문제점

- ① 대학에 따라 특정분야에 과목이 편중된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필요나 희망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공급자인 대학 교수진의 구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포괄적인 경제학 교육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 ② 경제학 특강이나 경제학 연습과목이 소수 인원으로 깊이 있는 교육을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취직시험이나 자격시험 등의 준비를 위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경제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1989.

③ 실제 개설되지도 않고 교수도 확보되지 않은 과목을 전시용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의 개설은 교수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대부분의 강의는 이론중심의 강의로 현실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살아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경제학 기초과목의 경우, 경제적 사고의 배양과 경제현실의 이해라는 목적에 맞게 경제이론을 쉽게 풀어 소개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⑤ 경제이론의 현실적용을 설명함에 있어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외국, 특히 미국, 일본 등 소수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제이론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려는 교수들의 연구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바탕을 둔 이론의 구성 및 경제현실의 설명에 보다 많은 강의의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⑥ 대학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관의 정립 및 지식의 전수에 있다. 경제이론의 수리적 접근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고급 경제학이론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지나친 이론 및 분석도구 위주의 강의는 현실과 괴리되어 실용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암기위주의 일방적 강의형태로는 학생들의 창의력 및 현실분석 능력을 배양할 수 없다. 신입사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경제지식의 테스트보다는 폭넓은 독서와 토론을 통한 경제적 통찰력 및 분석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강의 위주, 암기 위주의 현대 대학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은 고교교육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창의성과 독창성을 요구하는 현실의 요청에 맞추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2) 인접학문과의 연계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 가장 과학적 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학문으로 경제이론의 개발과 경제현상의 분석을 위해 수학, 계량분석방법 등의 지식을 요구한다. 또한 경제현실의 이해와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경영학, 무역학 등의 응용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경제와 사회 간의 연관성 분석 및 정책적 접근을 위해서는 정치학, 법학 등에 관한 이해도 필요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89년 대학요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개 조사대학 중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EDPS 또는 컴퓨터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설문지를 통해 경제학과 졸업생의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과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학과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과목 : 경영학, 무역학, 민법, 무역영어, 법학개론, 사회학, 영어, 세법, 상법, 통계학, 행정학, 심리학

② 경제학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여타 과목 : 미적분학, 선형대수, 정치학, 사회학, 논리학, 역사, 조직행위론, 정치학, 민법총칙, 행정법, 상법, 철학, 논리학, 심리학, 통계학, 한국근현대사, 교양한문, 세계사, 문화사, 경영학, 전자계산

③ 정치경제학 관련과목의 개설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32개 대학 중 44%에 해당하는 14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설하지 않고 있는 17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앞으로 개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정치경제학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교수들의 교과과정 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의 문제점으로는 정치경제학 과목이

저학년에 개설될 경우 학생들의 이해정도가 낮고, 여타 과목과의 연계성 및 후속과목의 강좌개설이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현실적으로는 정치경제학을 객관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교수요원의 확보가 어렵고 적절한 교재의 빈곤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미 개설된 관련과목(경제사상사, 경제학설사, 경제변동론, 비교경제체제론)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별도로 정치경제학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3) 4개 대학의 사례분석

① 4개 대학의 특성

위에 선정된 4개 대학은 세칭 일류대학으로 고교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라는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첫째, 이들 4개 대학의 경제학과는 각기 상이한 대학(college)에 속해 있다. 서울대학의 경제학과는 국제경제학과를 비롯하여 정치학과, 외교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와 함께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고, 연세대학은 경영학과, 응용통계학과와 함께 상경대학에, 고려대학은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행정학과와 함께 정경대학에, 그리고 서강대학은 경제학과 하나만으로 구성된 경상대학에 속해 있다. 서강대학의 경우 원래는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경상대학에 함께 있었으나 경영학과가 경영대학으로 독립함에 따라 경상대학에는 경제학과만이 남게 되었다.

둘째, 서울대학은 국립대학이고 다른 대학들은 사립대학이다.

셋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경제학과는 해방전 경성고상, 연희전문, 보성전문에 개설되었던 상과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서강대는 해방 이후 신설되어 일제시대의 경제학 교육 전통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방전 경

〈표 4〉 4개 대학 전공과목 비교

대학	전공필수(광의)		전공선택	계
	전공기초	전공필수(협의)		
서울	3	3	40	46
연세	6	11	26	43
고려	2	4	37	43
서강	4	6	30	40

* 자료: 각 대학 요람 및 강의개설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전공기초와 전공필수의 구분이 없는 경우 〈표 1〉의 구분에 따랐음.
- 연세대학교 요람에는 통계학 (1), (2)가 전공필수로 구분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표 1〉의 구분에 따라 전공기초에 포함시켰음.

제학 교육의 전통이 어느 정도 현재의 교과 과정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② 전공과목의 개설현황

4개 대학의 전공과목 개설수는 40개 이상으로 전국 평균인 32개에 비하여 많았다. 전공필수(광의)와 전공선택 간의 구분에서는 대학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연세대는 17개의 과목을 전공필수로 지정하였고 서강대는 10개의 전공필수 과목을 지정하였다. 이 두 학교는 경영학 과목 한 개(연세대) 또는 두 개(서강대)를 경제학과의 전공필수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학과와 경영학과가 동일한 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서강대학의 경우는 분리 이전). 서강대의 경우 10과목의 전공필수 이외에 금융경제학, 재정학,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의 수강을 권장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다면 실질적 필수과목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에 비해 서울대와 고려대는 공히 6개씩의 전공필수 과목만을 지정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경제수학을 전공선택으로

운영해 왔으나 경제·국제경제학과군의 출범을 계기로 경제수학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세와 서강 두 대학은 전공필수를 과다하게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데 신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연세대에서는 전공필수인 통계학, 경제수학, 경제학 설사를 다른 대학과는 달리 각각 두 과목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 과목운영의 편중이 지적되고 있다.

③ 전공선택과목의 비교

전공선택과목의 경우도 대학별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표 3>과 <표 1>, <표 2>에 나타난 선택과목 이외에 경제사와 경제정책 분야에 여러 개의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을 경제학과의 전공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국가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대에서는 중국경제론, 북한경제론 등의 특수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영어 회화 I·II를 전공선택에 포함시켜 실용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의 경우 전공필수와는 별도로 미시경제학(II), 거시경제학(II) 등 이론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학 연습, 경제학 특강, 한국경제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3개 대학에 비해 학생수와 교수수가 적기 때문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타대학에 비해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을 강조하고 있으며 타 대학에는 없는 고등미적분, 선형대수, 수

리통계학을 전공선택으로 개설하고 있다.

4. 교과과정 개선방안

다음은 연세대학교 교과과정운영 개선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전공분야 개선방안을 경제학과의 경우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³⁾

1) 학과간 동일 유사과목의 통합

동일 유사과목이 타학과와 중복 개설될 경우 대학 또는 학과간 논의를 통해 통합운영을 검토한다. 통합될 과목으로는 도구과목(수학, 통계학 등)과 기초과목(경제원론)을 대상으로 한다. 동일 유사과목의 수가 많을 경우 학부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부에서 개설되는 전공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토록 한다. 서울대학교는 1995학년도부터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를 통합하여 경제·국제경제학과군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동시 수강과목 개설

학부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자질있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정된 과목에 대해 학부생의 수강을 허용한다. 이 경우 대상은 3,4학년생으로 하고 6학점까지만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3) 산학협동과목 및 현장실습과목 개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수요자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과과정운영 개선연구』, 1994년 8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학협동과목 또는 현장실습과목을 개설하여 기업체, 금융기관, 연구소 등의 인턴제 확대 실시에 부응하여야 한다. 과목의 개설은 계절학기를 적절히 활용하고, pass/fail, 무학점 과목 등으로 개설할 수 있다.

4) 대형 기초과목의 분반지도

경제원론과 같은 전공기초과목의 경우 1내지 2인의 교수가 강의를 전담토록 하고 적절한 수의 분반으로 나누어 조교가 보충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강의 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전담교수는 강의조교를 활용하여 경제현실의 이해 및 경제적인 사고(economic way of thinking)의 배양에 주력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기초과목의 전담교수에 대해서는 2과목 강의로 인정해 줌으로써 강의에 충실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졸업논문제도의 개선

4학년생에 대하여 졸업논문을 전공필수로 요구하는 대학이 많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도교수의 논문지도가 형식적이어서 학생들에게 기대했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졸업논문은 우수학생과정(honor program)을 신청한 학

생에 한해 작성토록 하고 논문지도를 교수의 교육책무의 하나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관련 논문이나 평론 등을 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보고서나 기말과제물을 전공과목의 성적평가에 반영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6) 전공필수과목의 조정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과도한 전공필수과목의 지정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를 줄이고 전공필수 담당교수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과 사회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도록 전공필수과목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신설과목의 개설이 용이하도록 과목개설을 신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신의순/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교수, 브라운대 교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서문제연구원 자원·에너지 프로그램 책임교수이자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저서로 『자원경제학』, 공저로 『중국적 사회주의와 개혁정치』, 『한국의 에너지수요와 생산요소간 대체성 분석』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환경개선 촉진을 위한 정책발전방안 연구", "전력산업구조 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외 환경동향과 산업정책 방향" 외 다수가 있다.